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학생인권조례와 행복한 학교



Interview

아이들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기회 마련돼야



IDI 소식



한-일 중소기업지원정책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이하 인발연)은 재단법인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Zoom 人



동호회 태동의 선봉장, 관광계의 미다스 심진범 박사
'매달 둘째주 금요일, 오후 세시'는 우리 연구원 동호회가 시작되는 시...

Zoom INcheon



경명대로(1) 정매이 고개의 전설
경명대로(景明大路)는 부천시 오정구 박촌교 3거리 부근, 외곽순환고속도...

도시동향



설벽을 걷는 황홀함,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일본 혼슈(本州)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한 도야마현(富山縣)은 북서계절풍...

IDI 연구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본 연구는 인천시청과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10...

인천지표



교육환경 비교지표
교육여건 및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교원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임병조 · 전교조인천지부장

서울, 경기,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시·도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왜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권은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학생들에게 인권은 '허락되지 않은 것',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은 '미성숙자'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

인천의 학생들은 입시를 위하여 0교시, 강제야자, 학원학습 등 쉴 틈이 없으며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성적을 비판하여 스스로 몸을 던지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또한 매일 교문을 들어설 때는 두발과 복장을 자기검열 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유보되거나 '미래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 학생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성인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수많은 실수를 거치면서 교사와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키우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나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성인들보다, 사회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청소년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훗날 사회에서 성인이 된 후에 값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학생인권이 만들어지는 역사

지난해 6월 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소통하는 학교'를 바라는 (가칭)인천학생회 모임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학생인권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15개 고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학생회모임' 성명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인천도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였다. 또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처럼 학교사회의 경쟁을 조장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가 되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의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경기도나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이 학교의 반인권적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여 법적으로 얻어낸 작은 결실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 즉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껏 치열한 경쟁에 의해 유지되는 의미 없는 수업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만나 관계를 맺고, 배움을 통해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하고, 학교를 만들어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조례는 학교를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권추락론'이나 '무법천지론'을 내세우며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인권은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것일 뿐, 무제한의 무책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등 학생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학교의 모습으로 바뀌어 오히려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셋째, 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침(teaching)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learning)이 우선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는 학교, 배움과 나눔, 돌봄이 있는 학교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이다. 학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소수의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전환되는 '공교육 정상화'와 '강화'가 점차 실현되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열 가지 열쇳말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학교', '참여와 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학교',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하는 학교',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존중하는 학교',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권리를 돌려줄 때 그 권리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열 가지 열쇳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언젠가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이 필요 없는 민주사회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서울, 경기,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시·도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아이들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기회 마련돼야

아이들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기회 마련돼야

이번 71호 웹진 아프리에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연구한 신현주 선생(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수료)을 만나 따돌림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발생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따돌림 방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현주 선생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수료)

Q. 특별히 집단 따돌림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09년에 6학년 영어 교과를 맡게 되어서 6학년 8개 반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급마다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뒤처지는 아이들, '수업에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유독 눈길이 갔어요. 그 때 마침 대학원 질적 연구 수업 때 실습 과제 주제로 '수업에 소외된 아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인터뷰 하던 중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자신의 학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급 아이들에게도 소문이 퍼져서 그 학년의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담임교사가 아니라 여러 학급을 다니면서 학급마다 고유의 분위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만약

이 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갔다면 그곳에서도 따돌림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학급 전체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외로움과 상처를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집단 따돌림, 왜 이것이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Q. 초등학교에서의 따돌림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요?

제가 관찰하고 연구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집단 따돌림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 먼저 학기 초 아이들은 서로 자신만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리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 때에는 그 전에 같은 반이었던 경우, 학원 친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중요한 것이 '소문'입니다. 만약 저의 연구대상자인 경우,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어느 한 명이 '재 작년에 왕따였다. 가난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와 친구나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때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의 '섬'이 되면서 같은 반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같은 모둠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그 아이를 떼어냅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서서히 분리시키고 떼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 반에서 힘이 센 아이들에게요. 학급 아이들 사이에도 권력이 있어요. 게임을 아주 잘하거나, 싸움을 잘 하거나, 힘이 센 아이가 싫어하면(아이들 용어로 "찍히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랑 놀지 못하게 하고, 말이라도 걸면 '너도 짬짜 친구'라고 놀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그 분위기에 금방 동조가 되어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의 탓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찍힌 왕따는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난, 폭력과 같은 행위와 주변 아이들의 침묵, 동조 속에 몰고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 떼어내 집니다. 이런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따돌림은 아이들의 시간과 공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특징적인 것은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교과 시간이나 행사, 체육시간 운동장, 강당 등에서 더 적나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의 집단 따돌림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따돌림의 방법 또한 인터넷 놀이를 흉내 내어 뒤에서 연필로 찌르기, 다른 친구 물건 몰래 책상에 넣어서 누명 씌우기, 홈페이지 가상 공간에 악플 달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들이 합쳐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집단 따돌림이 견고해지면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따돌림이 사라지기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리 짓기에서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아이가 분리되고 떨어져나가는 과정이 집단 따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학급 내 아이들의 위계질서에 의한 낙인, 동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Q. 집단 따돌림 현상이 남긴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가치의 흔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놀림을 받고 맞아야 할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 소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들은 왕따 아이를 무시하고, 또 왕따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말이 없어지고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상처'라고 생각해요. 먼저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 아이는 결국 전학을 갔어요. 떠나기 전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자신을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욕하는 거, 놀리는 것을 담은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면서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봉투가 터지듯이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결국 그렇게 원하던 친구 한 명 없이 전학을 갔지만, 그 아이의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또 따돌림을 시키고 동조하는 아이들도 상처를 받아요. 같이 괴롭혔다는 죄책감, 아무 말도 못했다는 죄책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1년이 아이들 모두에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피해라고 한다면, 집단 따돌림은 다음해에 또 다른 집단 따돌림을 부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따돌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채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전학을 가버리면 남겨진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은 그 때 아무 말도 못했는지, 되돌아 볼 기회도 없이 모든 것은 떠난 그 아이의 잘못으로 남겨집니다. 그렇게 다음해에도 자신의 학급에 왕따가 생기면 또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또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시킨 아이도 내년에도 또 그런 아이가 학급에 있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똑같이 따돌림을 주도할 수 있겠죠. 따돌림 문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서 처벌하는 것 외에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돌림 문제에서는 모두가 다 피해자죠. 중요한 것은 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전학을 갔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Q.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따돌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집단 따돌림을 '학급'에서 보았어요. 결국 그 시작은 그 학급 안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 하나 하나가 진정한 '학급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학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의 중심도 먼저 학급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슬펐던 건 옆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스콧 펙(Scott Peck)에 따르면 공동체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곧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때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소외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경우 동등하거나,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가난하고 지저분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생김새가 다르거나 보통 아이들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가진 아이가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아이들은 그런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점이 융화되고 나랑 다르지만 그 아이는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게임은 1등이지만 날더기를 뜻하는 바이가 있고, 중중아시만 유머스럽다는지 서도에 내안 장점이나 특기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모두들 학교 가고, 학교에서는 진도 따라잡고 시험 보기에 바빠요. 특히 따돌림이 심했던 반 남자아이들 대부분이 굉장히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혼자 앉아서 사람을 죽이고 등급을 높이고 그런 게임을 하다보면 사람들과 접촉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서로 자주 부딪히고 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학기 초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 중요한 분이 바로 담임선생님이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학급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학기 초에 교우 관계도나 아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잠재적 왕따'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따돌림이 일어날 조짐들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항상 더 없이 행복하고 멋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공동체를 비롯해서 어디서든 정기적이다시피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불화, 혹은 서로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곳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 보통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엄마가 해결해주거나 담임선생님이 혼내거나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내가 혹은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하는데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자신의 생활이나 삶, 행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 연구를 마친 소감을 들어볼게요.

연구 중에 전학을 가버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친구가 없던 그 아이는 저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아이가 전학을 가버렸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아이가 떠난 후에도 그 연구를 계속 했던 이유는 '또 다른 왕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노력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면서 저는 누구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따돌림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앞으로도 따돌림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의 그러한 문화는 사회의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더 공부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국 행복한 학급 문화, 행복한 학교 문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대담 : 배 은 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71호 웹진 아뜨리에는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신현주 선생(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수료)을 만나 따돌림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발생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따돌림 방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한-일 중소기업지원정책 세미나 개최

한-일 중소기업지원정책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이하 인발연)은 재단법인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데라 열매)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 30분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마을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배 박사(도시경영연구부)는 인천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도미나가 테쓰로 일본총합연구소 부이사장은 일본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김민배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인천형 마을만들기 연구과제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인천산업발전전략 연구과제를 중점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며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구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도시정책 전문가 등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에 본원을 두고 있는 일본총합연구소는 일본 경제기획청과 통상산업성의 허가를 받아 1970년에 설립됐으며,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연변대학 민족연구원과 연구교류 협정 세미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연변대학 민족연구원(원장 손순일)과 연구교류 협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협정식과 세미나는 인천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강화 고려 역사연구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 협의와 나아가 인천-연길-개성의 도시간 교류를 통한 남북평화교류의 가능성 및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

김민배 원장을 비롯해 도시기반연구부 김용하 선임연구위원, 도시경영연구부 김창수 연구위원 등이 지난 6월 15~17일까지 3일간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구 연지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을 방문해 연구교류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인천과 연변 도시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창춘-지린-투먼 개발현황 관련 간담회와 개성-강화 고려역사 연구를 위한 논의를 가졌으며, 도문, 삼합지구 시찰도 하는 등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약속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연변대학의 역사학과 김성호 교수를 연구자문관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향후 연구원에서 추진 예정인 개성-강화 고려역사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지난 6월 15일,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2층 대회의실에서 2012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가 있었다. Mr. Haitham Jwienat(요르단 암만시 행정담당관) 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및 우리 연구원 소개와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한 현황 브리핑이 이어졌고, 청사시찰 및 사진촬영 등을 했다.



인천지역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진단 및 정책제언을 위한 경제세미나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우리 연구원이 후원하는 '인천지역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진단 및 정책제언을 위한 경제세미나'가 지난 6월 15일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 지역 내 부동산 경기진단 및 대응방안(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 지역 내 건설업 동향 및 중장기 발전방안(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천-단둥-한가례-서해 협력포럼

인천시는 지난 6월 7일 중국 단둥시와 공동으로, 단둥시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및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2012 인천-단둥 서해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해 6월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으로 열린 서해 평화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10일까지 4일 동안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양서우 한겨레신문 사장, 이봉조 전



동일무상관, 스랑 난농시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6.15남북정상회담 12



년, 한중수교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압록강을 앞에 두고 신의주가 보이는 단둥에서 서해협력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인천과 단둥은 많은 공통점이 있고, 황금평 개발을 둘러싸고 단둥과 인천, 북한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첫날인 7일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동북아 시대와 서해에서의 새로운 협력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날 제2세션은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의 원원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제3세션은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의 사회로 남북중 경제협력의 실태와 전망을 점검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셋째날은 단둥시 중장기 개발계획 설명회와 남북경협 중국진출 현지 기업 등을 방문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이하 인발연)은 재단법인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테라 열매)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 30분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마을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동호회 태동의 선봉장, 관광계의 미다스 심진범 박사

6월에 만난 idi people

동호회 태동의 선봉장 관광계의 미다스 심/진/범 박사

“아트리에에는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달 둘째주 금요일, 오후 세시’는 우리 연구원 동호회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현재, 영화동호회(35명), 사진동호회(9명), 레포츠통호회(12명), 익스트림스포츠동호회(12명)를 비롯해 몇 달 전 새로 생긴 인문답사동호회(6명), 걷기동호회(8명)에 연구원 식구들이 작성과 취향을 고려해 가입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동호회는 다소 정적인 연구원에서, 연구에 지치고, 마감에 쫓기는 대부분의 일상에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한여름 소나기 같은 반가운 제도다. 그런데, 이 한여름 소나기를 불과 몇해전부터 만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 8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가면, 동호회의 태동을 알린 ‘답사연구회’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심진범 박사가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동호회가 활성화되려는 조짐을 보이는 즈음을 맞이하여, 동호회 태동의 선봉에 섰던 심진범 박사를 만나 ‘답사연구회’에 대한 추억들을 꺼내보기로 했다.

2004년에 발족된 ‘답사연구회’는 지금처럼 사무처의 지원 아래 운영된 것이 아니라 상조회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상조회(회장 최병국)에서 동호회 활동 지원이 의결되면서, 상조회 운영위원이던 심진범 박사가 답사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을 알아가는 재미, 여행하는 기쁨,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취지로 ‘답사연구회’를 제안했고, 연구원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후, 동호회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 19명이 심진범 박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인천과 서울 등 인근 지역의 역사성과 시의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당일 답사를 하되, 연1회 정도는 장거리 답사여행도 추진해보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3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드디어 역사적인 첫 답사로 선택된 ‘인천 근대개항장’으로 떠났다. 당시 연구원의 핵심 연구구조 중 하나였던 ‘인천재발견’의 기지 하에 중구 일대 개항장을 같이 걸으면서 관광을 전공한 심 박사가 총괄 해설을 맡고, 당시에 재직했던 중국 유학파 출신인 박기성 총무와 정길자 회원이 차이나타운에 대한 유창한 정보를, 일본에서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이형복 회원이 일본지계 일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곁들였다. 어찌나 회원들이 정열적인지 거의 5시간을 걷고 나서야 차이나타운에서 자장면 만찬을 즐겼던



▲제1차 인천 근대개항장 답사(2004년 3월 20일 오후 5시경).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첫 답사지이기도 하지만 관련 전공 회원들의 정성과 준비, 인간적인 교감 능이 어우러져서 지금도 제일 생각이 많이 난다. 개인적으로는 이 답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더 커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로 서울 덕수궁 일대 근대문화유산 관련 답사(2004년 5월), 월미도 야간 답사(2004년 7월), 신포동 답사와 송년회(2004년 12월), 강화도 답사(2005년 3월), 청계천 답사(2005년 10월), 동구 달동네 박물관 답사(2005년 12월)를 다니면서 회원 간의 정도 쌓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가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심진범 박사의 제안 아래 태어난 '답사연구회'는 삼년 가까이 32명의 회원으로 덩치를 키운 후에 2기 운영진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2008년 2월, 정식으로 연구원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동호회가 출범된 것. 심진범 박사는 '답사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그 애정이 남달랐기에 동호회의 날이 생긴 것에 반색을 표했다. 과거에 동호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어서 애착이나 몰입도가 컸고, 구성원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고 가족적이었던 것은 큰 장점이었지만, 지원수단이



▲ 가족과 함께한 강화 답사(2005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다양하지 않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토대로 양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조금 더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욕심(?)을 부리자면, 동호회별로 다양한 형식의 활동이 가능하므로, 연구원 차원에서 제시된 원칙은 따르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틀, 이를테면 동호회 시간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운영이나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연구원 식구들이 인간적인 소통이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능도 겸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한다.

예전보다는 동호회 자체의 분위기가 경직된 느낌인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하고 합리적인 요구조건들이 수용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 된다면, 연구원이 존재하는 한 '휴식'같은 달콤한 동호회로 쭉욱 이어져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얘기와는 별도로, 관광을 전공하는 분이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여름 휴가지로 추천할만한 곳을 귀띔해달라고 청했다.

심진범 박사는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여름은 인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 두 곳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가까운 섬으로는 대이작도를, 조금 거리가 있는 먼 섬은 대청도를 추천했다. 먼저 대이작도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 여행하는데, 풀등이라는 생태자원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섬지역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곳아서 휴가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미있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장소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제주도를 간 이 섬의 어른들이 '여기 우리가 왜 온 거냐. 우리 섬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휴가지로서 제격인 곳이다. 대청도는 뱃시간으로 네시간 정도 걸리는 섬인데, 섬에 도착하는 순간 힘든 뱃시간 이상의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자부했다. 삼각산, 모래여울마을, 옥죽동 사구, 세상에서 가장 큰 독수리 바위, 소청도 등 보물 같은 자원을 품은 섬 대청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대청도 여행은 꼭 한 번 다녀오기를 권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었나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심진범 박사와의 인터뷰 키워드는 동호회, 연구원, 인천이었다. 별개의 것이 아닌 중국에는 하나로 통하는 관광에 대한 무한 애정과 신뢰까지... 젠틀하고, 점잖고, 선비 같지만, 마음 한켠, 누구보다 낭만과 풍류를 아는 가객의 끼도 살아 숨쉬는 심진범 박사. 심 박사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연구원 동호회도, 인천 관광의 미래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 글 : 장승지(사무처 경영관리팀)

'매달 둘째주 금요일, 오후 세시'는 우리 연구원 동호회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현재, 영화동호회(35명), 사진동호회(9명), 레포츠통호회(12명), 익스트림스포츠동호회(12명)

를 비롯해 몇달전 새로 생긴 인문답사동호회(6명), 걷기동호회(8명)에 연구원 식구들이 적성과 취향을 고려해 가입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동호회는 다소 정적인 연구원에서, 연구에 지치고, 마감에 쫓기는 대부분의 일상에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한여름 소나기 같은 반가운 제도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경명대로(1) 징매이 고개의 전설

인천의 길 이야기 6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경명대로(景明大路)는 부천 오정구 박촌교 3거리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계양 나들목에서 시작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으로 연결되면서 끝나는 총 연장 14km의 왕복 8차선 간선도로다. 경명대로는 오늘날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지만,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에서 계양도호부를 잇는 유서 깊은 길이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계양나들목을 내려서면 바로 용종사거리이고 임학지하차도, 임학사거리가 나온다. 임학사거리부터는 땅 밑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며 경명대로가 주부토로(主夫土路)(계양구 계양고등학교~부평구 갈산중학교)와 교차되는 지점에 계산역이 있다.

계산역 부근은 경인교대역 부근과 함께 계양구의 중심지다. 주말이면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계산역을 조금 지나면 계산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길이 부평나들목을 거쳐 부평구의 부평대로에 이어지는 경명대로다. 계산삼거리를 지나면 주변의 건물들이 차츰 낮아지면서 맞은편으로는 철마산 능선이, 오른쪽으로는 계양산 자락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계양산은 부평의 주산(主山)으로 여겨져 왔다. 주산은 진산(鎭山)과 같은 말로 나라의 도읍지나 고을의 뒤에 있는 큰 산으로 고을을 감싸고 진호(鎭護)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계양산 아래에 부평부 치소가 위치하고 계양산 서쪽 능선에 경명현(景明縣)이라는 고개가 표시되어 있다. 계양산 동남쪽 산록에는 **조산(峭山)**이라는 작은 산이 세 곳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양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 산'인 셈이다.

계양산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 고려시대 부평의 고을 이름이 주주(州州)였을 때에는 주주악(州州岳),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불렸을 때에는 안남산(安南山),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였을 때에는 계양산(桂陽山)이 되었다. 대체로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양산이라 부르고 있지만, **대동여지도**에는 안남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계양산은 김포와 부평 평야에 솟아 있어 산세가 자못 웅장하고 산자락도 넓고 품고 있는 골짜기도 많은 산이다. 계양산에 얽힌 이야기도 많으며 이 산을 소재로 한 시문의 숫자도 적지 않아 **계양시문(桂陽詩文)**을 모으면 한권의 책을 이룰 만하다. 계양시문의 앞머리는 고려의 대문호였던 이규보다. 신홍사대부인 이규보는 무인정권 때 관리로 등용되어 벼슬을 하다가 한때 좌천되어 계양부사로 온 적이 있다. 그는 계양부사를 지내는 동안 **계양 망해지**, **만일사**를 비롯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조선시대에 들어 조서강을 비롯한 문인들도 계양산과 부평 평야, 지금의 서구에서 바라본 해변 풍경을 묘사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정조 임금도 김포에서 부평으로 행차하여 당시 부평 관아에 잠시 머무르면서 지은 시 한 수도 전해온다.

계양산 빛 곱고 또 곱구나

너른 벌판 좋은 땅에 가을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은 풍요롭고 정사가 공평하니 이 얼마나 좋을지

누가 강태공의 무성현의 경륜을 이어갈 것인가

桂陽山色極嬋妍

百里秋登上上田

民富政平斯可矣

誰能更續武城鉉

-정조, 부평에 머물러 읍다 富平府治 盡呼嘖

정조는 1797년 8월 15일(정조 21년) 김포의 장릉 전배를 하고, 그 이튿날인 16일 김포행궁을 떠나 수원인 현유원(顯裕園)으로 가는 도중에 부평에 행차하여 점심을 들며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당시의 부평은 지금의 계양구 일대였다. 정조임금은 그때 7언 절구 한 수를 읊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계양산의 자태와 곡식이 가득한 부평의 평야를 바라보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군주의 마음을 담은 시이다. 민부정평(民富政平)이란 낱구는 임금이 고을의 수령에게 백성은 풍요롭고, 정사는 공평하게 하라는 당부인 말이다. 이 구절은 마치 정조가 부평이라는



경명대로를 통해 서구 공로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징매이교개**다. 경명대로의 경명은 이 **징매이**와 관련된다. 고려 충렬왕 때 이 고개 주변에 고려 충렬왕은 매 사냥을 즐겨 이곳에 웅장한궁을 설치하고 매를 관장했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징매이교개**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징매이교개와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경명고개**를 거쳐 **경명현**이 되었다고 한다. 한자어 **징매**다 고유어 **매**를 붙여 썼다는 것은 우리말 조어법에 볼 때 어딘가 근색하다. 반대로 **경명**이라는 한자어가 음운변화를 거쳐 **강명**·**강명**·**징명**·**징매**로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해동지도**와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경명현**을 **경명현**이라는 지명으로, **조선지리지**에도 **경명현**이라는 지명과 함께 우리말로 **경명이교개**라 고 기록되어 있다.



징매이고개는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무성했기 때문에 도둑데와 관련된 전설이 곳곳에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징매이고개의 또 다른 이름인 **천명고개**도 산적과 관련되는 지명 유래담이다. 옛날에 이 고개에는 도적떼가 많아서 이 고개를 넘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함께 넘어야만 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징맥이개는 홍길동(洪吉童), 장길산(張吉山)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일컬어지는 임궽정의 활약 무대이기도 했다. 벽초 홍흥희의 소설 임궽정(任伯正)에는 격정이가 계암산(桂岩山) 징맥이개(徵麥以開) 일대에서 스승을 만나 검술을 익힌 곳으로 그려져 있다.

계양산은 부평읍내서 열드러지던 코가 달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음의 진산(眞山)이니 이 산 안에 명화적(明火峽)이 무리를 짓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명화적이 부평부사와 이웃하여 지내는 셈이었다. —임억정(林億正), 2권 (사계절), 199쪽

걱정이가 초행이라 물어가면 길을 걸었다. 서울을 배켜놓고 한강 하류를 건너 김포땅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데 구술원 길을 물어 나오기는 양주서 떠나던 이튿날이었다. 무인지경 숲속길에 틀어박혔다. 숲이 커거나 길지는 아니하지만 나무와 땃새가 들머신 가짜에 대낮에도 길이 어둡힐진하였다. (중략) '머리에 검은털 하나 없는 늙은이가 늙은 열기는 어찌 그리 매서울까 늙은이가 확실히 수상하지.' 걱정이가 늙은이와 말을 하고 싶으나 말거리는 없어 "구술원이 여기서 먼가요?" 하고 물어 볼 것도 없는 말을 물었더니 늙은이가 "머지 얹어" 간단하게 대답하고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였다. - 임익정[林巨正] 2권 (사계절), 1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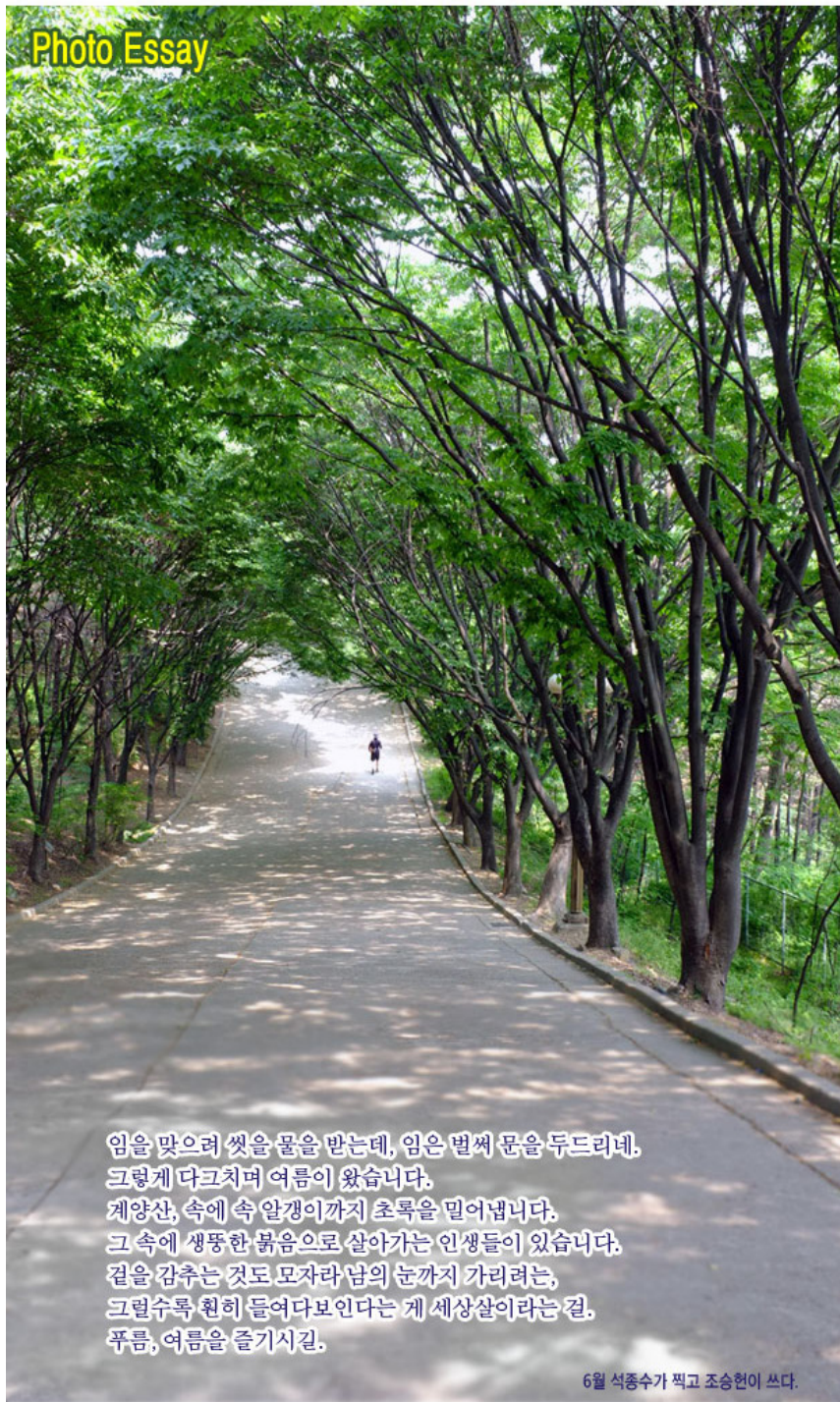
소설 **임꺽정**에도 부평과 정매이교가 일대는 명화적이 부평도호부 코 밑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무법지대로 묘사되어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임꺽정이 이 정매이교가의 **구술원**이라는 곳에 사는 무예가 뛰어난 노인을 만나는 대목이다. 노인은 꺽정의 인간됨됨이를 시험하고 나서 검술을 의로운 일에만 사용하겠다는 맹세를 받은 다음 무예를 가르친다.

정재이 고개 일대에는 지금도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공촌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의 여러 군부대가 위치해 있다. 군도⁸⁸⁾들이 준동하던 어제의 안산지역이 오늘날 군인들의 훈련장이 되었는데, 이는 세월의 무상함보다 변화가 없는 땅의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걸까? 모든 군종들 사격장에서 걸러오는 요란한 총성은 땅에도 팔자도 있다는 말을 대신하는 듯하다. 최근 계양구에서는 이 일대에 **일찍정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장소를 서로한 아이기를 잘 활용하는 흥미로운 사업이다. 다만 **구술원**과 같은 지명을 다시 고충하고 **정재이고개**의 도둑식물들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hoto Essay



임을 맞으려 씻을 물을 받는데, 임은 벌써 문을 두드리네.
그렇게 다그치며 여름이 왔습니다.
계양산, 속에 속 알갱이까지 초록을 밀어냅니다.
그 속에 생동한 붉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길을 감추는 것도 모자라 남의 눈까지 가리려는,
그럴수록 흰히 들여다보인다는 게 세상살이라는 걸,
푸름, 여름을 즐기시길.

6월 석종수가 찍고 조승현이 쓰다.

길에서 만난 **맛집**

진정한 슬로푸드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밥상의 융합



소담한정식



작은 정원이 아담하고 예쁜,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한정식집이 있다. 계양구에 위치해 있지만 슬쩍 도심을 벗어난 위치다.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애매한 곳이지만, 텃밭들이 많아서 멀리 외곽에 나와 먹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상호만 들어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소담한정식**은 상견례나 가족모임에도 좋을 장소다. 좌식형에 방마다 병풍이 있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식당 안에서 내다보이는 작은 정원

한정식집인만큼 한상차림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지는데, 메뉴는 며느리 밥상(22,000원)부터 이모님 밥상(27,000원), 어머니 밥상(33,000원), 장모님 밥상(45,000원), 외할머니 밥상(55,000원)과 사전 예약이 필수인 수라상(78,000원), 진연상(98,000원)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함께 하는 사람이나 모임 성격,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다. 평일오후 네시까지 한정이기는 하지만, 점심 특선(15,000원)도 있어서 반갑다.

소담한정식의 자존심은 식당에서 쓰는 채소 대부분을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새벽시장에서 그날 그날 메뉴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해 요리한다는 것. 또 충남 태안에서 재배한 순수 우리콩으로 빚은 메주로, 직접 담은 장을 올린다. 슬로 푸드를 실천하는 대표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일 점심이고 하니, 점심특선을 주문해 보았다. 분위기에 걸맞게 개량한복을 차려입은 아주머니들이 호박죽, 잡채, 두부탕수, 보쌈,



소담한정식 정원에 핀 꽃들





누룽지탕, 청포묵, 고구마칩 맛탕, 샐러드, 부침개, 도토리 냉묵을 차례로 상에 올린다. 전체적인 음식이 간이 세지 않고, 맛있다. 여느 한정식집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종류들이기는 하지만, 손 안가는 음식이 없다. 특히 부쩍 더워진 날씨 때문인지 먹음직스러운 도토리 냉묵이 시원하게 입맛을 돋워준다. 당연하겠지만, 상차림이 비싸질수록 육회, 더덕구이, 갈비찜, 홍어찜, 활어회 등 고급 요리들이 추가된다. 그렇지만, 15,000원 상차림도 전혀 아쉽지 않을 맛과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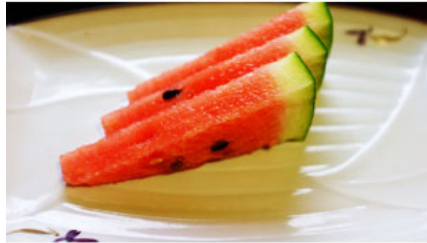


이미 한상 가득 받은 다양한 음식들로 배가 부른 즈음에 따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들어온다. 돌솥밥과 누룽지는 기본, 비지찌개와 된장찌개를 비롯해서 거의 9첩 반상에 이르는 나물과 찬들, 그리고 간장게장과 조기구이까지...

밥상만으로도 한끼 식사가 충분할 정도인데, 벌써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여서 포만감에 나른할 지경이 된다. 가볍게 차려나온 점심특선이 이 정도로 훌륭한데 왕의 상차림인 수라상이나 진연상을 받으면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된다. 이어서 후식으로 나온 매실차와 수박까지 먹고 나면 정말 완벽한 마무리다.



대접받은 느낌과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는 기분을 동시에 충족시켜줄만한 썩 괜찮은 소담한정식. 외관만 화려하고 터무니없는 가격들이거나 맛보다 디자인에 신경 쓴, 한껏 치장한 요리들로 가득한 부담스러운 한정식집보다 소담하고 아늑하고 깔끔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식당이 진정한 맛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주소 : 인천 계양구 박촌동 287-14
*전화번호 : 032-552-2323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경명대로(景明大路)는 부천시 오정구 박촌교 3거리 부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계양 나들목 시작하여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복인천 나들목으로 연결되면서 끝나는 총연장 14km의 왕복 8차선 간선도로이다. 경명대로는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며,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에서 계양도호부를 잇는 유서 깊은 길이기도 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설벽을 걷는 황홀함,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산악관광루트

일본 혼슈(本州)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한 도야마현(富山縣)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에 눈이 많고, 특히 산지에 적설량이 많은 지역이다. 일본의 지붕이라는 높이 약 3,000m의 다테야마 연봉이 자리잡은 현으로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라는 대표적인 산악관광지가 있는 곳이다(1971년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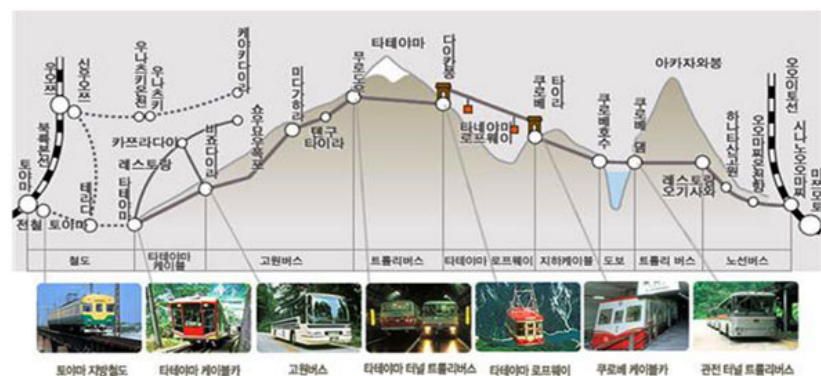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 위치>
자료 : <http://www.alpen-route.com>

다테야마(立山) 연봉은 후지산(富士山), 하쿠산(白山)과 더불어 일본의 3대 명산 중의 하나이며 그 풍경이 유럽의 알프스를 닮았다고 해서 알펜루트로 불린다.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는 도야마현 다테야마(立山)역에서 나가노현 오기자와(扇沢)역까지 약 86km에 이르는 대자연의 여정을 케이블카, 고원버스, 트롤리버스, 로프웨이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횡단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다.

구로베 댐~오기자와 구간은 원래는 댐 건설을 위해 건설되었던 곳이고, 다테야마와 구로베코 구간은 처음부터 관광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현재는 전 구간이 관광 목적으로만 운행되며 도야마 지방철도, 다테야마 구로베 관광, 간사이 전력 3사가 공동 운행하고 있으나, 공공운송회사인 다테야마 구로베 관광이 노선 대부분의 운영을 맡고 있다.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 코스별 이동수단>

구간별 주요 볼거리는 삼림욕과 야생새의 숲인 비쵸다이라(해발 1,000m), 낙차 350m의 일본 최고의 폭포인 쇼유모우 폭포, 고산식물의 보물창고인 미다가하라(해발 2,000m), 알펜루트의 중심지인 무로도(해발 2,500m), 높이 186m, 길이 492m의 일본 최대의 아치식 댐인 쿠로베 댐(해발 1,500m) 등이 있다. 4계절 다양한 대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로 인기가 있다.



<쿠로베 댐 전망대>



<비조다이타 30년 된 삼나무>

눈의 계곡 걷기(雪の大谷ウォーク)

이 지역은 매년 10~20m에 달하는 적설량 때문에 12월경부터 통행이 금지되고 4월경 설벽을 뚫어 개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4월 17일~30일, 5월 7일~31일까지 무로도 고원(室堂高原)과 덴구다이타(天狗平) 구간의 도로 양쪽으로 20m에 이르는 눈으로 된 대계곡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이벤트인 '雪の大谷ウォーク'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설벽 도로를 걸을 수도 있고 직접 설벽을 만져보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이 설벽은 일본 영화 '비밀'에서 첫장면(교통사고 나는 장면)에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겨우내 내린 눈으로 덮인 곳을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설작업을 해서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이 설벽 체험은 6월초까지만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설벽이 녹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든다. 설벽에는 이 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새겨놓은 이름과 메시지가 가득하며, 곳곳에서 장관을 기억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눈의 계곡 걷기(雪の大谷ウォーク) 이벤트>

발상의 전환, 최악의 자연조건이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는 열악한 자연조건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하여 관광상품화 한 사례들이 있다. 스웨덴의 아이스호텔, 삿포로 눈꽃 축제, 사막여행 등이 그것이다. 춥고 더운 기후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전환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 또한 눈이 많이 오는 지형적 특징을 설벽 걷기 체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는 관광자원이 없다고들 말을 한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인천에는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명한 테마파크, 대규모 리조트 등을 건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어디에나 있는 곳'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

다테야마(立山) 쿠로베(黒部) 알펜루트(Alpine Route)를 여행하면서 인천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봐야 하는 과제를 남긴 여행이었다.

일본 혼슈(本州)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한 도야마현(富山縣)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에 눈이 많고, 특히 산지에 적설량이 많은 지역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도시경영연구부 배 은 주 연구위원

본 연구는 인천시청과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10개 학교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4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에 대하여 2011학년도 학교 단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학력향상,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연연계(아웃리치)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안하여 실행하였으며, 이전보다 수준별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스펙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대개 학생선택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되도록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였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성과만을 지향하지 않는 관리자의 마인드와 교사들 간의 공감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선도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력향상과 진로진학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고, 입학사정관제 대비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경험하며, 교사와 대학선배와의 유대감도 증진되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교차원에서는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홍보 효과도 있고, 운영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게 된 성과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학습피로도 상승, 프로그램의 종류와 대상의 편중된 경향, 보다 세분화된 수준별, 개인맞춤형 운영 방식의 부족, 프로그램 관리체계의 부실,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공간과 강사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편중과 소외 문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운영 문제, 예산집행의 세부 지침 부재와 예산편성과 집행의 경직성, 교사편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의 문제를 운영과정 중에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남은 기간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예산 운용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과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과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규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도학교 운영 목적과 평가 기준을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2년차에 접어들었다. 운영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던 사업이긴 하지만, 시작한 이상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는 빠르게 다양화와 다원화로 변화하고 있고, 더불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지식의 양보다는 질과 창의적 활용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이에 맞추어 '학력'의 개념도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수능등급과 '스카이(SKY)'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학력 평가 기준이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인천시청과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10개 학교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4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에 대하여 2011학년도 학교 단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교육환경 비교지표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도시경영연구부 장 소 현 초빙연구원

■ 국제간 비교

▶ 교육여건 및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국제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임.

▶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수 및 학급수의 증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함.

구분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28.6	35.1	22.5	19.9	16.7
OECD국가 평균	21.4	23.7	16	13.5	13.5

- 출처 : OECD 교육지표(2011)

- 주 : 한국은 2011년도, OECD 교육지표(2011)는 2009년도 기준임.

■ 인천과 타시도와의 비교

▶ 인천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는 25.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 고등학교는 32.4명으로 8위이며, 이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치임. 반면, 중학교의 경우 36명으로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는 18명, 중학교는 19.4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치를 보이며, 대체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편임.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 14.1명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6개 시도 중 5위로 조사되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구분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26.8	32.8	33.6	18.1	17.7	15.3
부산	24.8	32.5	32.2	17.1	17.2	14.4
대구	26.2	35.0	34.7	17.8	18.6	15.6
인천	25.3	36.0	32.4	18.0	19.4	14.1
광주	26.6	35.7	36.4	18.8	19.4	16.3
대전	26.3	33.7	34.3	18.1	18.0	15.3
울산	26.3	32.6	35.7	17.6	18.2	15.6
경기	28.6	35.1	35.2	19.6	17.9	15.4
강원	21.3	30.3	29.6	14.2	15.4	12.8
충북	23.2	31.1	33.0	15.9	16.4	15.7
충남	22.7	31.1	31.3	15.2	16.3	14.7
전북	22.3	30.7	30.2	14.9	15.1	13.4
전남	20.5	29.7	28.5	14.0	14.4	12.9
경북	22.3	29.5	29.9	14.8	14.3	13.4
경남	24.4	31.4	32.3	16.4	17.3	14.8
제주	25.1	34.7	35.0	17.2	18.3	16.4
평균	25.5	33.0	33.1	17.3	17.3	14.8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1)

■ 인천광역시 내 군·구별 비교

▶ 강화군,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분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연수구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지역구분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구	24.4	34.7	27.6	17.3	17.3	11.6
동구	24.4	35.8	29.6	17.5	17.5	13.7
남구	26.1	37.0	30.7	18.8	18.8	13.1
연수구	26.3	36.8	34.9	19.3	19.3	15.6
남동구	25.9	37.1	33.4	18.3	18.3	14.6
부평구	25.4	36.3	32.7	18.2	18.2	14.4
계양구	25.4	36.4	35.1	18.0	18.0	14.9
서구	25.9	35.6	34.1	18.1	18.1	15.3
강화군	15.5	25.9	27.7	10.2	10.2	11.5
옹진군	11.4	14.7	9.7	8.5	8.5	2.8
평균	25.3	36.0	32.4	18.0	18.0	14.1

· 출처 : 인천시 교육통계(2011)

교육여건 및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국제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이다.